

崩壞 埋沒되어 아무런 保護도 받지 못한채 放置되어 있다. 保存을 爲한 諸般조치가 時急한 狀態에 놓여 있다.

下臺中石은 各面마다 三枚의 板石을 連結하여 構成하였고 小板石마다 眼象을 새겨 두고 가운데다 十二支像을 一軀씩 陽刻하여 두었다.

上臺中石은 各面이 二枚의 板石으로 構成했으며 各板枚마다 八部神將을 一軀씩 陽刻하였다. 甲石은 四枚로 되어 있고 副緣과 扉임이 붙어 있다. 第一塔身은 單石으로 隅柱間의 面石에는 四天王像을 새겨 두었다. 屋蓋石은 四段의 받침을 갖고 있으며 위에는 四段의 扉임이 있다. 塔面에다 十二支像, 八部衆神, 四天王像을 彫刻한 것은 求禮 華嚴寺 西, 五層石塔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것과 比較할 때 諸像의 彫刻 手法面에서 寫實的이란 것과 特別 面像이 嚴正하고 衣裝文이 雄麗함에 거의 같은 感覺을 주는데 華嚴寺의 것은 그 塔身이 좁은 感覺을 주는데 對해 이것은 慶州地方에서 볼 수 있는 一般型이란 것 정도의 差가 나타날 따름이다. 아쉽게도 塔上部와 下部가 崩壞 缺失되어 그 全體의 雄麗함을 보지 못함이 애석하였다.

造成年代는 新羅初期石塔의 特徵인 建築的 樣式을 벗어나 裝飾的인 傾向을 나타내는 西紀八世紀頃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甲石 幅 二一六 cm

第一塔身 幅 九六 cm 高 八〇 cm

第二塔身 幅 八〇 cm 高三二 cm

全體 高約 三八〇 cm (露出部만)

以上 英陽近方을 둘러 볼 때 模塔塔으로서의 特色있는 外觀이라든지 石塔으로서의 優麗한 모습 등을 볼 때 훌륭한 美術이 그나마도 慶州에서 먼 地方의 한 곳에 集結해 있는 것은 英陽이란 곳이 佛敎의 한 中心地를 이루지 않았나 生覺된다.

以外에도 英陽에는

化川洞에 石佛坐像一軀(高 九二 cm) 日月面

道谷洞에 石佛坐像一軀(高 一一二 cm) 立岩面

新舊洞에 三層石塔(高 二五五 cm)과 石佛(高 五三 cm)이 있다.

### 樂生面出土 金銅菩薩坐像

崔 淳 雨

一九六三年 八月 장마 후에 京畿道 廣州郡 樂生面 石雲里(별운리) 당골 마을 溪川에서 部落民 李康湜氏가 發見하여 保管하고 있는 金銅菩薩坐像一軀를 機會가 있었으므로 그 概略을 써 두고자 한다. 이 佛像是 靑銅鑄造로 된 全高 一三·三 cm 佛高 九·六 cm의 結跏趺座한 菩薩形坐像으로서 內部는 空洞으로 되어 있고 表面에는 全面에 두꺼운 鍍金이 있었던 모양으로 相好와 앞가슴에는 아직도 찬란한 金色이 거의 完美하게 남아있다. 머리에 쓴 보자기형으로 보아 削髮한 地藏菩薩形으로도 보여지며 그 類型的인 作例를 들자면 寶物로 指定된 禪雲寺 地藏菩薩像을 들 수 있다. 手印은 바른손은 위로 들어서 外掌한 듯하나 손가락이 이즈러져서 明瞭치 못하며 왼손은 배앞에 水平으로 들고 있으나 持物은 現在 남아 있지 않다. 팔각지 璽珞等 華嚴具의 장식은 없어서 大體로 簡朴한 아름다움을 示現하고 있으며 比例가 큰 머리에 넓은 이마에는 白毫가 있어서 마치 如來形을 연상시키고 있다. 이 菩薩像의 特異한 樣式을 찾자면 오히려 그 臺座部에 있으며 네모를 동굴린 이 方形臺座는 高이 三·五 cm 面의 넓이 六·三 cm 側面 七·三 cm의 크기이다. 이 臺座는 그 高이 中間에서 窄록



하게 허리를 내고 이 허리에서 上·下로 迎蓮과 覆蓮의 簡古한 單線刻 蓮瓣文을 새겨 넣었으며 이 臺座의 各面 下端部 中央에 芻구멍이 하나씩 뚫려져 있다. 이 芻구멍은 木造나 또는 다른 形態의 下臺에 連結되었던 자취로 보여지며 보기 드문 臺座形式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背面에 鑄造時에 남겨진 缺失部가 있는 外에는 거의 完形이며 相好의 印象, 그리고 頭大前屈한 芻로필과 素朴한 衣褶의 處理 등으로 보아 李朝初期頃의 作品이 아닌가 想像되었다.

### 咸安 長春寺의 石造藥師如來坐像

鄭 永 鎬

慶南 咸安郡 漆北面 榮東里의 長春寺 龍華殿에 奉安하고 있는데 原來는 오래前에 境內의 竹林에서 作業中 出土되었다고 한다(李燦住持談)。 光背와 一石인 坐像은 거의 圓刻에 가까우며 出土時 各部에 若干의 磨痕이 있었으나 現在는 白粉을 입히고 特別히 兩眉 眼·口唇等에 赤·綠色을 漆하여 本然의 姿態를 잃은 느낌을 주고 있음은 哀惜한 일이다. 螺髮의 頭頂에는



肉髻가 있고 白毫가 있으며(原來는 痕跡이 있었으나 後補) 兩耳는 길게 내려졌다. 右肩偏袒한 衣文은 雄麗하며 左腕을 걸쳐 兩膝을 덮었고 手印은 右手를 結跏趺座한 右膝上에 얹고 左手로는 臍前에서 寶珠를 받들

고 있다(寶珠의 赤色漆은 後補)。 光背는 圓形으로 頭·身 兩光이 周緣에 火焰文이 있으며(現在는 色漆) 頭光에는 蓮瓣이 둘러져 있는데 그 端雅한 彫法이 注目되었다. 身光의 內緣에는 紋樣이 彫刻된 듯하다. 全體彫刻이 均整한 듯하나 身高에 比하여 膝高가 낮은 편이다. 坐像의 肩部와 手印等 光背의 各部彫法으로 보아 高麗中期의 作品으로 推定된다. 實測值(cm)는 坐佛 高 七三·肩幅 三六·膝高 一三·胸幅 一三·膝幅 五〇·光背高 九五·五 廣幅 六六·下幅 五六이다.

이 外에 大雄殿 前庭에 石塔一基와 拜禮石、蓮華臺石等 各一座가 遺存하는 바 石塔은 移建한 바로 現在 四層이나 本來는 五層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屋蓋받침이 三段씩이고 落水面 轉角 및 基壇의 手法으로 보아 麗代 中葉의 作品으로 推定된다. 拜禮石은 矩形으로서 上面의 伏蓮과 側面의 眼象이 注目되었으며 蓮華臺石은 石燈材로 쓰여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二座 모두 年代는 高麗中期의 作品으로 推定된다. 實測值(cm)는 石塔 高 三九〇·拜禮石 六〇×四八(高二六)·蓮華臺石 徑 七三·高三二이다.

#### 資料

谷城郡 石谷面 石谷里 石造如來立像

申 榮 勳

큰 길 가 눈두렁에서 있는 巨像이나 무릎 以下는 埋沒되었다. 重厚한 顔面에 높직한 肉髻를 가졌고 머리 뒤에 둥그스름한 頭光이 빛난다. 목은 긴 편이나 三道는 없고 法衣는 通肩인데 顔面과 衣紋의 大部分은 磨滅되어 細部를 볼 수 없다. (總高 九·八尺 幅 三·五尺 厚 三·四尺)。